

植民地時代 美國文學에 나타난

Puritanism과 그 거센 波長

張 旺 祿

(英文科 教授)

The literature of Colonial America is the immediate record of that process. That is the first and fundamental job that literature does: it records the evolving consciousness of a people, formed by its environment.

—Robert Douglas Mead*

미국 식민지가 시작된 이후 18세기 전반까지를 미국문학사에서 흔히 「淸敎主義時代」(Age of Puritanism)라고 일컬을 만큼 이 시기의 문학에 청교주의 사상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지금은 定說이 되어 있지만, 한동안 Vernon L. Parrington 교수는 이 기간의 New England의 사상과 생활을 지배한 것은 淸敎主義와 더불어 이에 맞선 自由主義(liberalism)였다면서, 자유주의에 오히려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처럼 주장하여 문학비평가들로부터도 꽤 많은 호응을 얻은 적이 있었다. 그는 자유민, 소지주, 자작농, 상인 등 주로 재산취득에 관심이 많은 자유주의의 Yankee와 神과 성서의 계율에 따라 살 것을 강요하는 청교주의의 Puritan이 兩者의 목적과 이상이 씨와 물이 되어 짜여진 것이 당시의 생활이었다고 한 다음, 이렇게 썼다.

The Puritan and the Yankee were the two halves of the New England whole, and to overlook or underestimate the contributions of either to the common life is grossly to misinterpret the spirit and character of primitive New England. The Puritan was a contribution of the old world, created by the rugged idealism of the English Reformation; the Yankee was a product of native conditions, created by a practical economics.¹⁾

그러나 그의 주장이 史實에 기초를 두었으며 따라서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文學의 主潮를 논할 때에는 문학적 유산 목록에 들어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학작품속에 자유주의 사상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고 청교주의 사상이 팽배한 것을 보는 마당에서는 당시의 청교주의와 문학의 함수관계에 대한 Kenneth B. Murdock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을 부인할 수 없다.

The Puritans who dominated the intellectual life of New England for the first century after

* Robert Douglas Mead, *Colonial American Literature: From Wilderness to Independence*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6), p. 2.

1) Vernon L. Parrington, *The Colonial Mind: 1620~1800*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27), pp. 3-4.

the British settlement of Plymouth and of Massachusetts Bay achieved their domination and influenced later generations largely through the spoken and written word.... Throughout history, literature, in the broadest sense of the word, had been an indispensable adjunct of Christian thought and life.²⁾

1492년에 Columbus가 신세계(the New World)를 발견한 후, 포르투갈, 和蘭, 스페인, 프랑스 등의 列強은 영국보다 수십년 앞서 신대륙을 탐험하고 도처에 식민을 시작하였다. 위낙 바다를 사랑하고 진취적인 국민인데도 영국이 그렇게 늦게 참여한 것은 왕위계승을 둘러싼 오랜 내전* 등으로 해서 Renaissance가 유럽대륙에서 보다 더디게 開花한 것에도 연유가 있었다. 르네상스는 知識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현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깨우쳐 여행과 항해를 즐기고 未知의 세계를 탐험하는 의욕을 돋구는 데도 한 몫을 했던 것이다. 이 획기적인 文化運動에 수반하여 1510년대부터 중부 유럽에서 북부 유럽으로 풍미한 종교개혁운동(the Protestant Reformation)은 영국에 상륙한 후, 이 나라의 종교는 물론,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1534년에 Henry 8세가 로마 카톨릭교회와 절연하고 영국국교(Church of England)를 창시한 것은 그 하나의 획기적인 표현이었다. 영국의 신대륙에의 식민은 Renaissance와 이에 따른 종교개혁운동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탐험가들은 주로 북미대륙에 식민을 기도하였으나 처음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 기획자들 중에서 특히 유명한 사람은 Walter Raleigh였다. 그는 그가 탐험한 Florida 북쪽 일대를 Virginia라고 명명하여 “Virgin Queen”인 Elizabeth 1세에게 바쳤다. 그는 현재의 North Carolina주 Roanoke섬에 식민을 시작했으나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Spanish Armada)와 해전(1588)을 벌이기 위하여 선박들이 동원된 관계로 이 섬에 대한 보급이 중단되었으며 1591년에 그 섬에 돌아와보니 영국인은 한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소위 “Lost Colony”이다. Trafalgar 海戰에서 스페인 해군을 격멸시키고 해상의 패권을 잡은 영국은 산업·교육·외교면에서 공전의 발전을 했다. 뿐만 아니라 文學史上 “Elizabethan Age”로 불리우는 찬란한 Renaissance문화의 꽃**을 만발케 한 Elizabeth여왕이 1603년에 서거하자, Scotland왕 James 6세가 영국왕 James 1세가 되었다. 열강이 신대륙 진출에 선수를 친 것에 자극을 받아 런던의 상인들은 王權神授說을 내세우는 James 1세를 추켜서 植民會社 설립의 인가를 얻어 냈다. 이렇게 설립된 London Company는 147명을 태운 3척의 배

2) Kenneth B. Murdock, *Literature & Theology in Colonial New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p. 1.

* 장미전쟁(the Wars of the Roses, 1455~1485).

** Shakespeare가 *Hamlet*(1602)에서 “What a piece of work is a man! How noble in reason! how infinite in faculty! in form, in moving, how express and admirable! in action, how like an angel! in apprehension, how like a god!” (II, ii, 317)라고 한 말은 특히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르네상스의 人本主義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를 Virginia로 보냈는데 풍랑과 우회 때문에 4개월만인 1607년 늦봄에야 105명만이 Virginia 해안에 상륙하였다. 그들은 江 어귀에 마을을 건설하고 James 1세의 이름을 따서 James강, Jamestown으로 불렀다. 이들의 대부분은 목수, 대장장이, 노동자를 포함한 하층계급 사람들 아니면 상인, 투기꾼들이었지만, 항해자이자 문필가로서 이미 이름이 알려진 27세의 Captain John Smith를 비롯하여 귀족, 성직자 등 몇몇 두드러진 사람들도 6,7명 끼어 있었다. 그들은 우선은 이 멋진 新世界가 “Heaven and earth never agreed better to frame a place for a man’s habitation.”³⁾임에 환성을 질렀으나 곧 온갖 고난과 역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확천금의 꿈은 무산되고, 그들이 애써 채배한 담배의 수출마저 타산이 맞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식민지를 확대해나갈 첫발판을 구축했다.

Captain John Smith는 이 Jamestown Colony의 현지에서 쓴 그의 경험담을 본국에 돌아가서 출판하였는데 *A True Relations of such Occurrences and Accidents of Note as Have Happened in Virginia...**(1603) 같은 책은 본국인들에게 현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식민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 주었다. 후년에 또 그는 New England에 탐험항해를 하고 다시 쓴 *General History of Virginia, New England and the Summer Islands*** (1624), 그후에 또다시 낸 *Advertisements for the Unexperienced Planters of New England or Anywhere* (1631) 등은 모두 북미로의 이민을 권장하기 위하여 때로는 과장도 마다하지 않는, 이를테면 광고문학이었다. 그러나 그가 초대 총독으로 있던 Virginia에서 일단 귀국할 때까지 첫 13개월간의 생활을 그린 *A True Relation of Virginia*는 그 寫實的(graphic)인 필치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건들에 대한 소박하고 생생한 설명과 동시에 그들이 겪은 온갖 어려움을 서술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을이 인디언에게 습격당한 이야기며 식민지인들 사이의 분별없는 싸움이 神의 노여움을 사서 천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썼다. “God being angry with us plagued us with such famine and sickness that the living were scarce able to bury the dead.... As yet we had no houses to cover us; our tents were rotten, and our cabins worse than nought....”***

그는 당대의 다른 많은 항해 탐험가들처럼 신대륙의 개발의 필요성과 그 주민 사이에 기독교문명을 전파시킬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宗教의 이상과 帝國의 이상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았었다. 오히려 양자의 결합에서 그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 것 같다. 그의 “A Description of New England” (1616) 중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것을 뒷받침해준다.

3) Moses Coit Tyler, *A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1607~1783*, ed. Archie H. Jon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p. 3.

* 題名이 너무 길어서 보통 *A True Relations of Virginia*로 略稱한다.

** The Summer Islands는 오늘의 Bermuda 섬.

*** Ibid., p. 8.

Who can desire more content, that hath small means; or but only his merit to advance his fortune, than to tread, and plant that ground hee hath purchased by the hazard of his life? If hee have but the taste of virtue and magnanimitie, what to such a minde can bee more pleasant, than planting and building a foundation for his Posteritie, gotte from the rude earth, by God's blessing and his owne industrie, without prejudice to any? If hee have any graine of faith or zeale in Religion, what can hee doe lesse hurtfull to any: or more agreeable to God, than to seeke to convert those poore Savages to know Christ, and humanitie, whose labors with discretion will triple requite thy charge and paines?⁴⁾

Pearce 교수는 이같은 향해 탐험가의 “union of spirituals and temporals”의 사상을 “a Renaissance obsession”이라고 불렀다. Elizabeth朝와 Stuart朝의 향해자들은 신대륙을 개척하여 진보와 질서와 종교와 제국을 동시에 扶植하는 데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흥분한 어조로 강조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정신의 발로라는 것이다.⁵⁾

Captain John Smith의 저작물은 신대륙을 본국에 소개한 보고문서라는 점에서 식민지 문학의 하나의 전형적인 장르의 선구였다. Smith에 뒤이어 Alexander Whitaker 목사의 *Good News from Virginia* (1613)를 비롯하여 Virginia를 소개한 글이 적지 않다. Smith의 현지 보고는 Elizabeth여왕시대의 향해문집인 Richard Hakluyt의 *The Principal Navigations* (1589, 1598~1600)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환영되었다. 이런 종류의 르포타아지(reportage)는 John Hammond의 *Leab and Rachel; or The Two Faithful Sisters, Virginia and Maryland* (1656), George Alsop의 *A Character of the Province of Maryland* (1666), William Penn의 *A Letter from William Penn* (1683), Robert Beverley의 *The History and Present State of Virginia* (1705, 1722) 등 각지의 것이 있고 Smith의 것 이후로 모두 신세계의 아름다운 자연과 살찐 토지의 혜택이 있는 지상낙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세계를 본국에 선전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그런데 Virginia와 기타 남부지방에서의 현지보고가 많았던 것은 본국과의 종교적·정치적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이며 이와 반대로 New England에 관한 것이 적었던 것은 이 지방이 영국 식민지이면서도 종교적으로는 하나의 독립국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은 같은 교파가 이주해 오는 것은 환영했으나 다른 교파는 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보고문학이 적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문학의 상당한 부분은 New England에서 올린 신앙의 烽火를 구세계에 알리고 구세계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시도한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의 人本主義, 美에 대한 이교도적인 사랑, 知的인 탐구심은 Dover해협을 건너오자 그것에 새로운 정신적인 진지성이 가미되었다. 그래서 영국의 르네상스는 개신교 종교개혁운동에 의해 짙게 채색되었다. 그것은 예술가가 종교에 눈을 돌린

4) E. Arbor & A. Bradley, eds., *Travels and Works of Captain John Smith*, 2 vols. (Edinburgh, 1910), vol. 1, p. 208.

5) Roy H. Pearce, ed., *Colonial American Writing* (New York: Rinehart & Co., 1958), p. 3.

적지 않은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1611년의 欽定聖書(King James Bible), 17세기의 기도서, John Donne, Jeremy Taylor의 설교, Marvell의 詩, Milton의 서사시 등은 美에 대한 르네상스의 환희가 종교적 진리에 대한 개신교 개혁자의 종교적 열성과 혼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17세기 영국에서 神學이 다른 분야의 학문에 못지 않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한 르네상스의인 호기심은 행동인을 신세계 탐험에 내보냈듯이 지식인을 심리학, 과학, 철학, 전기에 못지 않게 종교의 연구에도 열을 올리게 했다. 17세기가 영국종교문학의 위대한 시기가 된 것은 실제로 이 기간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Henry 8세때 영국교회가 로마교회로부터 이탈한 것은 종교적인 동기에서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동기에서였으며 실제로 영국 개신교의 형태와 신조가 진지한 문제로 크게 표면화한 것은 Elizabeth 朝부터 17세 말에 걸쳐서였다. 敎義와 儀式에 치중하는 High Church의 國教徒들(Anglicans)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대폭 그대로 준수했고, 온건파 국교도들은 급진적인 개신교도처럼 성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의 장점도 받아들여 절충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급진적인 개신교도들은 로마교회의 냄새가 나는 것은 모두 淨化(purify)하고 오직 성서만이 영국 개신교의 모든 형태와 신앙을 결정해야 한다고 맹렬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후자가 이른바 淸教徒들(Puritans)인 것이다. 그런데 영국교회의 主敎들이 영국 국민들이 한결같이 영국 국교에 순응할 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1604년에 James 1세로 하여금 청교도들에게 "I shall make them conform themselves or I will harry them out of the land."라고 포고케 함으로써 일부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떠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고 또 그들이 New England의 식민사업의 主役을 하게 되므로 Renaissance와 영국의 Protestant Reformation의 연관성에 비추어, 미국식민지는 兩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620년, Mayflower 호를 타고 영국 Southampton 항을 떠나 오늘의 Massachusetts 주의 Cape Cod에 이르는 Pilgrim Fathers*는 청교도 중에서도 「분리파」(Separists)**였다. 사실 상 그들은 Plymouth에 상륙한 102명 중 41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물론 이 사람들이 이 移民船의 중심이었다. 그들은 원래 런던 북쪽의 Scrooby 마을에 살던 가난한 농민들로서 영국 교회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불복하고 이탈한 청교도들이며, 그로 인한 억압을 못참아 폐를 지어 본국을 떠나 和蘭에 이민갔다가, 자손들이 和蘭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 새 땅에

* Mayflower호에 뒀던 분리파 청교도들을 처음으로 "pilgrims"라고 부른 것은 William Bradford인 바, 그는 청교도들과 여타 인물들을 구별하여 "saints"와 "strangers"로 구별하기도 했다.

** Perry Miller는 그의 *The American Puritans*에서 분리파 청교도들을 가리켜 그들이 청교도 중에서도 골수분자라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They may well be called the purest of the purifiers. The heart and soul of that disposition was its intense devotion to the Bible, to the letter and the spirit, to the Old Testament as well as the New, and an absolute dedication to performing in this life what seemed the will of God."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대망을 안고 다시 그 나라를 떠났던 것이다. 열성적인 청교도로서 당연한 생각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神의 섭리에 따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Pilgrim Fathers의 중심인물이며 Plymouth Colony의 제 2대 총독이 된 William Bradford (1590~1657)가 남긴 역사적·문학적 가치가 있는 체험기록 *The History of Plymouth Plantation* (一名, *Of Plymouth Plantation*)의 도처에 나타나 있으며 그 한 예를 그들의 배가 아직 대서양 한가운데 있을 때 뱃멀미하는 선객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볼 수 있다.

And I may not omit here a special work of God's providence. There was a proud and very profane young man, one of the seamen, of a lusty, able body, which made him the more haughty; he would alway be contemning the poor people in their sickness and cursing them daily with grievous execrations; and did not let to tell them that he hoped to help to cast half of them overboard before they came to their journey's end, and to make merry with what they had; and if he were by any gently reprov'd, he would curse and swear most bitterly. But it pleased God before they came half seas over, to smite this young man with a grievous disease, of which he died in a desperate manner, and so was himself the first that was thrown overboard. Thus his curses light on his own head, and it was an astonishment to all his fellows for they noted it to be the just hand of God upon him.⁶⁾

Pilgrim Fathers는 그들의 배가 Cape Cod에 도착한 11월 11일에, 앞으로 그들이 건설할 Plymouth Colony의 정부의 기본법으로 삼기 위하여 Mayflower Compact(메이플러워 盟約)을 제정했다. 그것은 당장 전체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非清教徒 “strangers”를 통솔하고 새로운 질서에 복종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위의 에피소드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들 중엔 교양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식민회사와의 年期雇傭契約에 의한 돈벌이가 主目標인 노동자가 대부분인 그들은 이미 船上에서 번번이 소란을 일으켰었다. 그래서 그 맹약은 「神과 우리 서로의 앞에서 더 훌륭한 질서로써 생존을 유지하고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엄숙하게 계약을 맺고 단결하여 하나의 民間政體를 수립할 것」을 목표로 했다. Parrington 교수가 “the principle of a democratic church and the principle of a democratic state”⁷⁾라고 부른 이 맹약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그들의 입법과 행정의 적부심사 기준은 「식민지 전체의 이익」(the general good of the Colony)이라고 했고 따라서 「우리는 이를 당연히 전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복종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명문화한 점이다.

이 맹약을 기초하는 데도 주역을 한 것으로 보이는 Bradford는 Pilgrim Fathers의 상륙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6) William Bradford, *Of Plymouth Plantation, 1620~1647*, ed., Samuel Eliot Morison (New York, 1952), p. 58.

7) Parrington, *The Colonial Mind*, p. 17.

Being thus arrived in a good harbor, and brought safe to land, they fell upon their knees and blessed the God of Heaven who had brought them over the vast and furious ocean, and delivered them from all the perils and miseries thereof, again to set their feet on the firm and stable earth, their proper element.... But here I cannot but stay and make a pause, and stand half amazed at this poor people's present condition; and so I think will the reader, too, when he well considers the same. Being thus passed the vast ocean, and a sea of troubles before in their preparation...., they had now no friends to welcome them nor inns to entertain or refresh their weatherbeaten bodies; no houses or much less town to repair to, to seek for succour.... And for the season it was winter, and they that know the winters of that country know them to be sharp and violent, and subject to cruel and fierce storms, dangerous to travel to known places, much more to search an unknown coast. Besides, what could they see but a hideous and desolate wilderness, full of wild beasts and wild men—and what multitudes there might be of them they knew not... for which way soever they turned their eyes (save upwards to the heavens) they could have little solace or content in respect of any outward objects. For summer being done, all things stand upon them with a weatherbeaten face, and the whole country, full of woods and thickets, represented a wild and savage hue. If they looked behind them, there was the mighty ocean which they had passed and was now as a main bar and gulf to separate them from all the civil parts of the world.... What could now sustain them but the Spirit of God and His grace?⁸⁾

Plymouth 식민지 건설사업은 예상 이상으로 고난이 극심하여 *Of Plymouth Plantation*의 첫 몇 장은 “trouble,” “trial,” “travail,” “difficulty,” “danger” 등의 말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 첫겨울에 酷寒과 주택의 부족과 질병으로 그들이 半 이상이 죽고 남은 사람은 50명도 못되었다. Bradford에 의하면 초기엔 불평과 반항이 없지 않았으나 총독과 대다수 사람들의 지혜와 인내심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에 의해 진정되었다.

Bradford가 이 책을 쓴 동기는 총독으로서 본국 정부 내지 투자가들에게 식민과정과 문제점을 전달할 책임감을 느꼈고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역사적인 과업을 후세를 위해서 기록에 남길 사명감을 느낀 때문이기도 했으나 또한 그들의 사업에 대한 神의 은총에 감사하는 표시로서였다. 그들은 神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인한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여 준 초기 청교도의 목적의식과 근면성과 공정성, 사회의식, 실천성, 정의감과 召命感—이런 특질이 모두 미국인의 국민성에 깊이 뿌리박게 된 것이다. Walter F. Taylor는 이 책이 비록 “history”(「實話」라는 뜻도 됨)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17세기 미국문학의 고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서 내용과 문체에도 언급하고 있다.

Though the obscure Pilgrims never made such a great figure in American history as their later neighbors at Massachusetts Bay, their history as written by Bradford comes near being the

8) *Of Plymouth Plantation*, pp. 61-63.

literary classic of the American seventeenth century. The situation of civilized people struggling with a savage environment has proved perennially attractive in literature; consequently, despite many an arid stretch, Bradford's history abounds in material of rich human interest. And the story is admirably told, —told with a biblical simplicity that rises at times to restrained and solemn eloquence.⁹⁾

1630년에 1,000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Arabella 호가 이끄는 3척의 船團으로 대거 이주하여 보스턴을 중심으로 하는 Massachusetts Bay Colony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Plymouth에 비하면 땅도 비옥하고 하천도 많아서 식민이 비교적 빨리 진척되었으나 그래도 첫째 여름에 전염병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청교도들은 이를 神의 노여움으로 간주하고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하여 번번히 기도회를 갖고 神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엄숙히 다짐하곤 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들이 New England에 이민해 온 것은 영국교회 내에서는 더 이상 개혁의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교회와 신성한 공화국(the Holy Commonwealth)을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 이 점에서 그들은 Pilgrims와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그들이 數的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부유했고, 목사·의사·법률가 등의 고소득직업을 가졌거나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Pilgrims와 대조적이다. 그들은 모두가 그들의 총독 John Winthrop이나 목사들만큼 신앙심이 깊지는 못했으나 식민지 통치는 보다 더 능률적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후년에 Plymouth Colony를 병합하고 New England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양쪽 식민지가 공동으로 신봉하여 동지의식을 갖게 한 Puritanism은 독일의 Martin Luther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으뜸가는 지도자가 된 瑞西 Geneva의 John Calvin (1509~1564)의 神學 Calvinism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神은 절대적인 지배자이다. (2) 神은 全知者이므로 누가 구원을 받을지 처음부터 알고 있다—豫定說(predestination). (3) 神은 인간에 대해 매사에 賞罰을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낸다—攝理(providence). (4) 神은 자비에 의하여 소수의 사람만을 구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神의 은총에 의해서이다—選定(election). (5) 아담의 타락 아래로 인간은 그 조상의 죄를 안고 태어났으므로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原罪(natural depravity 또는 original sin).** (6) 죄는 인간 각자에 내재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것은 歸依하는 것이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歸依(conversion). (7) 神意는 성서에 계시되어 있다.*** 이것이 실생활에

9) Walter F. Taylor, *A History of American Letters* (New York: American Book Co., 1936), pp. 6-7.

* 그들은 속칭 세 가지 自由를 얻기 위해서 “the Promised Land”에 왔다. 그것은 “freedom to worship God as seemed best to them, freedom to earn a good living, and freedom to build an ideal commonwealth”였다.

** *The Scarlet Letter*의 “Conclusion”에 “We are sinners all alike.”라는 말이 나온다.

*** 이 敎義를 흔히 TULIP이란 略字로서 요약하기도 한다. 즉,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ence of the saints이다.

적용된 결과로서 (1)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神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神과의 계약(covenant), 그리고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계약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 (2) 정치에는 교회출석, 오락, 의복, 일상사, 직업, 물가 등 온갖 분야가 포함되며 다른 종교를 믿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3) 정치와 종교는 하나이며 불가분이다.

위에서 神과의 계약이란 청교도들의 選民思想에서 나온 것이다. Norman Grabo 교수는 “Bradford was also a profoundly religious man thrust providentially into a role of leadership to God’s favored people.”¹⁰⁾이라고 하여 그에게 選民意識이 있었음을 시사했고 Winthrop 역시 그가 이끄는 移民團이 舊約의 選民 이스라엘人の the Exodus의 “type”(原型)을 따른다고 믿었다. Bradford가 *Of Plymouth Plantation*을 낸 이후로 거의 모든 청교도들이 New England를 그리고 신대륙을 “Wilderness”(황야)라고 부른 것도 구약에 모세(Moses)의 막사(tabernacle)를 교회의 原型으로 여긴 그들의 發想에서 나온 표현인데, 그들은 New England를 the Exodus에서 모세가 이스라엘人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Canaan)에 갈 때에 지나간 아라비아 사막 지방(wilderness)에 비긴 것이다.

정치와 종교를 일체시킨「神權政治」(theocracy)는 교구별로 회중에 의한 조합을 형성케 하고 그들끼리 의논해서 政敎의 문제를 처리케 했다. 그래서 이「조합교회」(Congregationalism)가 국교(the state religion)가 되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회중의 토의에 의하여 운영하는 원칙이 세워졌고, 사회는 전의 청교도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즉 민주주의와 합리주의의 방향으로 움직여 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神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의식의 발동이며,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는 가차없이 추방되었다. 그래서 청교도 사회는 그 구성원이 원하건 않건 간에,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有機體였다. Miller 교수는 이처럼 종교와 정치 양면에서 New England를 지배한 청교주의 土着化의 연유와 그 전통의 뿌리깊은 영향력을 재조명해 준다.

But the peculiar isolation of the New England colonies—the homogeneous people, the sparse soil, the climate, the economic struggle—quickly made these Protestants a peculiar people. Because these societies were tightly organized, and above all because they were a highly articulate people, the New Englanders established Puritanism—for better or worse—as one of the continuous factors in American life and thought. It has played so dominant a role because descendants of the Puritans have carried traits of the Puritan mind into a variety of pursuits and all the way across the continent. Many of these qualities have persisted even though the original creed is lost. Without some understanding of Puritanism and that at its source, there is no understanding of America.¹¹⁾

10) Norman Grabo, “William Bradford: *Of Plymouth Plantation*,” Henning Cohen, ed., *Landmarks of American Writers* (Voice of America Forum Lectures, USIS, 1970), p. 7.

11) Perry Miller, ed., *The American Puritans: Their Prose and Poetry* (New York: Doubleday & Co., 1956), p. ix.

Massachusetts Bay Colony의 초대총독인 John Winthrop (1588~1649)은 상류가문에 태어났고 Cambridge 대학 출신이며 변호사 경력이 있는 청교도로서 계속해서 총독에 선임되었다. 그는 또 長老였고 神權政治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는 그의 主著 *The Journal*(日誌)에서 神權政治의 계약(covenant)에 언급하여, “The covenant between you and us is the oath you have taken of us, which is to this purpose, that we shall govern you and judge your causes by the rules of God’s laws and our own, according to our best skill.”¹²⁾ 라고 씀으로써 그 定義를 내리고 있다. 그는 또 이보다 앞서 쓴 일기에서 사소한 일에도 “a thing worthy of observation”이라면서 神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청교도의 태도가 나타난 하나의 예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다. 그의 아들의 서재에 그리스語의 성서와 詩篇과 祈禱書가 한 권으로 묶인 책이 있었는데 이 방안에 곡물이 있었던 관계로 쥐들이 들어와서 기도서 부분만을 한장도 빼놓지 않고 모두 쏴아 먹어버린 것을 발견했다면서, 기도서는 영국의 國敎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영국교회에 대한 神의 비판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여 주목할만한 사건으로 치고 있는 것이다.

[December 15, 1640.] About this time there fell out a thing worthy of observation. Mr. Winthrop the younger, one of the magistrates, having many books in a chamber where there was corn of diverse sorts, had among them one wherein the Greek testament, the psalms and the common prayer were bound together. He found the common prayer eaten with mice, every leaf of it, and not any of the two other touched, nor any of his books though there were above a thousand.¹³⁾

Winthrop은 1630년부터 그의 생애의 마지막 해까지 政務에 바빠서 자주 끊기긴 했으나 계속 日誌를 썼다. 그래서 당시의 식민지 사정을 아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보면 역사, 신학, 정치, 경제, 일상생활, 神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했는가 하면 理想, 논쟁, 고난 등 당대 사람들의 상황과 생각을 가늠할 수 있다. 일례로서 먼저 인용한 날짜의 日誌 속의 그의 自由論에도 청교도 냄새가 물씬하다. 즉 그에 의하면 자유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데, 「타고난 자유」(natural liberty)와 「시민의 자유」(civil liberty)인 바, 전자는 악한 사람도 짐승도 갖고 있는 자유로서 방자와 악으로 인도하며, 후자는 神과 인간의 계약에 일치하기 때문에 도덕적이며, 그것은 “a liberty to that only which is good, just, and honest”이다. 또한 이 자유는 권위자에 복종함으로써만 유지되고 행사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자유와 같은 것이며, 여자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면서도 느끼는 자유와 같은 것이다.¹⁴⁾

12) John Winthrop, *The Journal*, July 3, 1645, from Pearce, ed., *Colonial American Writing*, p. 50.

13) Miller, ed., *The American Puritans*, p. 41.

14) Pearce, ed., *Colonial American Writing*, p. 51.

神權政治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神學교육을 받은 지도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1636년에 Boston에서 Charles강 건너편의 Cambridge에 Harvard College가 창립되어 New England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시하는 학문이 존중되어, 음악과 韻文을 반드시 거부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實用性있는 교육이 중시되었다. 인간의 구원이 神意에 의해서 豫定되고 번영도 행운도 모두 神의 뜻이므로 人間事의 자당한 기록을 남기고 그 속에서 神의 섭리의 손길을 읽으려고 했다. 그 결과 New England에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histories), 일기(diaries), 일지(journals), 노트(note-books), 자서전(autobiographies), 전기(biographies), 설교집(sermons) 등을 써서 남겼다. 한편, 구원도 파멸도 행복도 불행도 이미 神에 의하여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멸도 불행도 별로 동정을 받지 못했고 수단방법의 옳고 그른 것도 문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부정한 방법으로 致富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파멸이 따르지 않을 때엔 그것은 神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Harvard College를 창설한 청교도들이 미국역사상 최초로 노예 무역선 “The Desire”號를 건조하여 노예무역의 主役이 되는 것에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았다.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합의할 수 있는 동안은 神權政治(theocracy)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信敎의 自由가 없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합의는 불가능했다. 목사들 자신 사이에서도 異見이 나와 그 반체제인사에 박해를 가하는 사례가 일어났다. Salem의 목사 Roger Williams (1603~83)는 인디언의 말을 기록하고 그들의 마을에서 보고들은 사실을 기조로 하여 그들이 백인들보다 더 선량하고 도덕의식도 강하다면서 그들을 옹호한 *A Key into the Language of America* (1643)에 이어, 사회의 제약이 개인에 미치는 것은 「몸과 재산과 외적 상태」에 한정되어야 하며 내적 상태, 양심, 의견은 어떤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정신의 자유를 옹호하고, 시민생활을 관리하는 정부가 종교상의 이유로 시민을 처벌할 권한은 없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The Bloody Tenet of Persecution for Cause of Conscience* (1644), 그 밖의 저서를 통해 theocracy에 반대하는 이론을 폈다가 추방명령을 받고 Rhode Island에 가서 동지들과 함께 식민지를 수립하여 Providence라고 이름지었다. 그러나 침례교도(Baptist)가 된 그가 Quaker교도를 호되게 비난한 「굴에서 파낸 조오지 폭스」(*George Fox Digg'd out of His Burrowes*, 1676)를 낸 것은 청교주의의 편협성을 비판한 그가 자신의 편협성을 드러낸 셈이다.

또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神權政治에 叛旗를 들었다가 Williams처럼 Massachusetts에서 추방된 Anne Hutchinson (c. 1591~1643)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로워진」(justified) 인간에게 「聖靈」(Holy Spirit)이 깃들어 있으므로 각자가 자기 내부에 있는 영혼의 소리에 충실하기만하면 행동면에서 성도(saint)답지 못하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Calvinist의 “unconditional election”과 “irresistible grace”를 공격했다. 일종의

도덕폐기론(Antinomianism)이었는데, 당시 그 의견에 경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것은 청교도의 질서를 질곡으로 느끼는 感性이 청교도사회 내부에 형성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녀는 1637년에 추방된 후 Portsmouth에 가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 후 뉴욕州로 이사갔다가 가족과 함께 先住民에게 물살되었다. 특히 여자가 청교도체제에 반대주장을 내세웠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이것은 후년에 Nathaniel Hawthorne의 *The Scarlet Letter*의 여주인공을 둘러싼 主題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이들 외에도 웨이코교도(Quakers), 침례교도(Baptists) 등이 박해를 받고 추방당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게다가 식민지의 생활이 전보다 풍요해지자 종교보다도 實利에 관심이 더 큰 백성이 많아지는 추세가 일어났다. New England의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選民」이라고 할만한 사람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되었고 또 그들 小數派는 관리이거나, 대의원 선거권을 가진 「市民」(citizens)이었고 나머지 대다수는 단지 「住民」(inhabitants)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별이 信仰을 核으로 하는 청교도 사회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住民」의 신앙심이 가난했던 시절보다 덜해지는 것 또한 자연의 추세였다. 한편, 청교도들이 非淸教徒와 反體制者들을 박해하고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은 本國인 영국에 청교도의 공화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 때까지였다. 1660년에 王政復古가 있었고 그후 Charles 2세가 1664년에 위원회를 New England에 파견하였다. 이 위원회가 現地の 정부와 충돌하여 그 결과 1684년에 Massachusetts Bay Colony의 認可가 취소되고 이 땅은 英領 뉴잉글랜드(Dominion of New England)가 되었고 Plymouth, Maine을 포함하여 國王代理의 총독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듯 神權政治는 안팎으로 정세변동으로 인한 쇠퇴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인데, Richard Mather (1596~1669)가 1662년경 「불완전한 계약」(The Halfway Covenant)을 기초한 것은 영국에서 청교도혁명이 실패한 후 시대의 추세에 맞춘, 청교도로서는 매우 완용스러운 양 보였다. 그것은 異端者의 자녀에도 세례를 인정한다는 선언이었다.

그의 아들 Increase Mather (1639~1723)는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장기간 그 대학의 학장직에 있으면서 저서로는 「뚜렷이 나타난 神의 섭리의 기록에 관한 에세이」(An Essay for the Recording of Illustrious Providences, 1684), 「악령에 관한 양심의 사례」(Cases of Conscience concerning Evil Spirits, 1693) 등이 있다. 후자는 바로 前年에 보스턴에서 가까운 Salem에서 수백명이 여자마법사의 혐의로 체포·고문·부속되고 그 중 20명이 사형에 처해진 「세일럼의 마법재판」(Salem Witchcraft trial)과 관계가 있다. 즉, Salem에서 疫病이 돌자 그의 아들 Cotton Mather 등이 잘 낫지 않는 그 疫病이 非淸教徒인 여자마법사의 탈을 쓴 악령의 소행이라고 설교함으로써 비淸교도를 박해한 그 악명높은 재판의 불씨를 만들었었다. Increase Mather는 위의 책에서 여자마법사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혐의자의 요괴스러운 증거(spectral evidence)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며 두 경성인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魔女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그러한 公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근히 그 재판을 부추겼다.¹⁵⁾

Cotton Mather (1663~1728)* 목사는 다재다능하고 또 多産的이어서 논문, 정치우화, 설교, 비극, 전기, 역사, 전투기록, 일기 등 각 방면에 걸친 저서와 램플렛을 약 5백편 냈으며, 그 중에서 대표작은 「미국에서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업적」(*Magnalia Christi Americana*, 1702) 일명 「뉴잉글랜드 교회사」(*Ecclesiastical History of New England*)이다. 이것은 그가 서문에서, “The reader will doubtless desire to know what it was that...drove men eminent in piety to endure so many calamities and to undertake so many hardships.” (Virgil, *Aeneid*, I, 9-11)라고 쓴 것처럼 청교도의 업적을 가리는 목적도 있었다. 그는 이 책에 William Bradford, John Winthrop을 비롯하여 역대의 총독과 주요한 목사들의 전기, 하버드 대학의 역사와 졸업생의 행적, 교회의 신앙과 조직, 神意(Providence)가 역력히 나타난 사례, 異教徒와의 투쟁, 先住民 인디언 이야기 등을 담아, 후세 사람들이 당시의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지식의 寶庫를 남겼다.

Mather家の 三代째 청교도인 그는 역사가로서 그리고 설교가로서 과거를 돌아보고 식민지 창건자들의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과학에도 관심이 적지 않아서 Newton을 환영하고 種痘를 장려했으며, 또 「뉴잉글랜드 교회사」에서 보여준 古風의 街學의인 文體로부터 세련되고 口語의인 文體로 전환할 수 있었던 散文의 대가이기도 했다. 그는 Franklin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계몽시대(Age of Enlightenment)를 내다보는 전환기의 역사적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가 Benjamin Franklin에게 영향을 준 「善行論」(*Bonifacius*, 또는 *Essays to Do Good*, 1710)에서 “If any children in the neighborhood are under no education, don't allow 'em to continue so. Let care be taken that they may be better educated, and be taught to read, and be taught their catechism and the truths and ways of their only savior.”¹⁶⁾라고 한 말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神과의 계약이나 어려운 神學 대신에 慈善과 순박한 믿음과 일상생활의 종교적인 규제에 의해서 New England의 청교주의의 방향을 새로 조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영국이나 독일에서 개신교(Protestantism)가 정치혁명의 개념을 포기하고 있음을 보고 New England의 神權政治의 앞날이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을 感知하지 않을 수 없었다. 神權政治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그가 만년에 와서는 그의 일기에 “I saw, to my sorrow, that there was hardly any but my Father, and myself, to appear with any Strength of Argument, or Fortitude, in Defence of our invaded

15) Miller, *The American Puritans*, p. 215.

* Miller의 말을 빌리면, “To modern taste, Cotton Mather repeatedly embodies the more unlovely aspects of the Puritan character; however, he is a highly complex being, sometimes heroic, and not be summed up in a formula.”

16) From Cotton Mather, *Bonifacius*, Miller, ed., *The American Puritans*, p. 218.

Churches.” (W.C. Ford, ed., *Diary of Cotton Mather*, Vol. I, p. 358)라고 비판할 정도가 되었다. 하기가 Bradford는 이미 1632년 경에 *Of Plymouth Plantation*에서 식민지가 번창해짐에 따라 주민들을 청교주의 일색으로 단합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했었다.

그것은 곧 청교도 사회의 世俗化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Samuel Sewall (1652~1730)의 *Diary*(日記)이다. 그것은 1673년에서 1729년까지 쓴 것이다. 1660년의 王政復古 후 영국에 눌러 살기가 두려워 Boston에 이주해 온 청교도 양친의 아들로서, 9세때부터 줄곧 이곳에서 살았고 하버드대학을 나온 뒤 인쇄소, 법정 등에서 일했고, 사업에 종사하여 巨富를 쌓았다. 그는 代議員으로 33년간이나 일했고 치안판사를 거쳐 Massachusetts州 재판소장직에까지 올라갔다. 그는 Salem의 마녀 재판에 직접 가담했었으나, 후년에 그의 일기에서 미신적인 주위 사람들의 압력에 못이겨 무고한 사람들을 고발, 처형케 한데 대한 과오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의 일기는 그자신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반영해주고 있어 흥미롭다. 새로 이주해 오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1690년의 Boston 인구는 약 7천명으로 추정된다.) 편협하고 금욕적인 청교주의는 그들 전체를 포용할 수 없어 몰락할 운명에 처해 있었던 데, 이처럼 世俗化(secularization)해 가는 사회와 그런 사회에서 활약하기 알맞는 실제적인(practical) 특성을 가진 이른바 “Yankee”세대가 형성되었다. Sewall 자신이 전형적인 New England Yankee이어서 돈의 중요성을 알고 셈도 빠르지만 정직하게 벌기를 원했고 명예욕이 강하지만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책임감도 있음이 이 일기를 통해 나타난다. 또한 그의 도덕의식은 그가 최초로 흑인노예제도를 반대한 책자 *Selling of Joseph* (1700)을 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의 일기엔 “I essay’d to prevent Indians and Negroes being rated with horses and hogs; but could not prevail.” (1716년 6월 22일)¹⁷⁾이라고 쓴 대목도 있어 인디언과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전형적인 양키는 돈과 명예를 존중하면서도 청교도적인 罪意識 역시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예컨대 몸져 누워있는 부인의 회복을 위해 Dr. Cotton Mather에게 청하여 기도를 올리게 하는가 하면, Winthrop 미망인에게 애정을 느낀다고 적고는 “but I think God directs me in his Providence to desist.”¹⁸⁾라고 덧붙였고, 그후 그의 부인이 죽자 그것을 그 자신이 진 죄에 대한 神의 섭리로 보고 “this very Extraordinary awful Dispensation”¹⁹⁾에 대한 심한 自責感을 느낀다. 日記 도처에서 神을 찾고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神意와 결부시키고 있는 것은 청교도적인 소양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락적인 생활에 대한 욕망, 주변인물들의 신앙심의 약함, 인도주의에 대한 관심 등이 일기 속에 자

17) “*The Diary of Samuel Sewall*,” Sculley Bradley et al., ed., *The American Tradition in Literature*, 4th edition, Vol. 1 (New York: Grosset & Dunlap, 1974), p. 49.

18) *Ibid.*, p. 54.

19) *Ibid.*, p. 56.

주나와 18세기의 世俗主義의 대두가 명백해지고 있다.

원래 청교도의 日記는 그들의 自叙傳처럼 神앞에서의 自己省察을 그 특징으로 했다. 그것은 종교적 동기에 있어서 그들이 쓴 역사나 전기와 마찬가지로였다. 즉 역사는 식민지에 있어서의 神의 섭리를 조명해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傳記는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의 神의 섭리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crease Mather가 쓴 그의 부친의 전기 *The Life and Death of That Reverend Man of God, Mr. Richard Mather* (1670)는 청교도 傳記의 걸작이고 Cotton Mather도 그의 부친 Increase의 전기를 썼고 또 그의 *Magnalia*에는 앞서 본 것처럼 다량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또 장례식 때의 설교(Funeral Sermon)에도 전기 문학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비록 무명인이라 할지라도 그 故人の 생애의 의미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불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교도들의 자서전으로서는 “In Adam's fall we sinned all.”이라는 原罪論을 열심히 설교한 Thomas Shepard (1605~49) 목사의 *The Autobiography of Thomas Shepard* (1832 출판)가 두드러진다. 이것은 그가 일생 동안 神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神에게 감사하는 동시에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는 청교주의를 위해서는 humanity도 상식도 고려의 여지가 없다는 외골수의 청교도였다.

John Winthrop의 *Journal* (나중에 *The History of New England*라는 제목으로 일부는 1790년에, 완본은 1825~6년에 출간)은 Bradford의 *Of Plymouth Plantation*과 더불어 초대 청교도가 남긴 역사문학의 쌍벽이지만, 그후에도 Edward Johnson (1598~1672)의 *The Wonder-Working Providence of Sions Saviour's in New England* (1654)라는 제목의 25年史, William Hubbard (c. 1621~1704) 목사의 *A General History of New England from the Discovery to 1680* (1815 출판)라는 50年史가 있고 또 상술한 Cotton Mather가 쓴 New England의 教會史를 포함한 여러 권의 역사가 있는데 이 청교도의 역사 책들은 모두 公的인 자기분석인데 반하여 그들의 日記는 본래의 동기가 개인의 자기분석이며, 구원을 얻기 위한 自己省察이었으나 Sewall은 日記에 세속적인 요소를 다분히 넣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미국의 Pepys」*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어쨌든 청교도의 자기성찰의 일기의 전통에서 Emerson과 Thoreau의 방대한 日誌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장례식 때의 설교 중에 전기문학에 들만한 것들도 있다고 했지만 일상적인 설교는 일요일 예배설교 외에 목요일에도 강의일(Lecture Day)이라고 하여 설교를 했다. 두 시간에 걸친 긴 설교도 많았고 최중은 설교를 필기하는 습관이 있었다. 문화도시 Boston엔 1639년에 인쇄소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설교들이 팸플릿으로 인쇄되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그 설교(문)는 무엇보다도 청중이나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 Samuel Pepys[pi:ps] (1633~1703)는 1660년대 영국의 세태와 私生活을 노골적으로 기록한 일기 문학의 세계적인 고전을 집필한 바 있다.

平明體(simple and plain style)가 사용되었다. 복잡한 修辭語의 구사, 라틴語나 그리스語의 인용 등은 오히려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나깨나 구구절절 金科玉條로 의지하고 사는 성서야 말로 그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용어와 이미지리와 기법에 있어서 가장 적당한 본보기가 되었다.

Inevitably, then, when he preached or wrote on divine themes he tended to limit his diction, his images, and his literary devices to those which he could find in Holy Writ. In subject matter too, obviously what was closest to the Bible was best. Biblical style was perfect because it was "penned by the Holy Ghost." It was a style of "great simplicitie and wonderful plainnesse," "unpolished," avoiding "the flowers of Rhetoricke," "the goodly ornaments of humane eloquence," and "wittie sharpe conceits."²⁰⁾

설교의 문체가 엄숙한 平明體일 뿐만 아니라 설교의 전개 역시 일정한 양식에 따랐다. 즉 우선 聖句를 인용하고 나서 教旨(Doctrine)의 제시, 이유(Reasons) 설명, 그리고 실천법(Uses) 지시가 그것이었다. Cotton Mather의 설교와, 그보다 웅변가였고 『교회기율요약개관』(*A Survey of the Summe of Church Discipline*, 1648)의 저자인 Thomas Hooker (1586~1647)의 설교는 그 본보기들이었다. Hooker는 영국국교회에 불복하다 쫓겨나 Holland를 거쳐 1633년에 Cotton Mather와 같은 배로 Boston에 온 청교도로서 Newton (후의 Cambridge)의 목사로 있다가 Cotton Mather의 theocracy의 전횡(autocracy)에 반대하여 Roger Williams가 Massachusetts로부터 그의 회중을 이끌고 Rhode Island에 가서 식민지를 만들었듯이 그도 거의 동시에 그의 회중을 이끌고 Connecticut Valley에 가서 Hartford에 식민지를 만들고 자치기구를 설립하였다. 그 헌법에서 民意에 의해 형성된 정부가 모든 사람의 선거권 행사에 의해서 대다수가 원하는대로 봉사한다는 것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어떤 史家들은 Hartford를 미국 민주주의 탄생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민주적 경향의 조합교회주의(Congregationalism)에 대한 청교주의적 영국 장로교도들(Presbyterians)의 공격을 물리쳐 New England 조합교회의 아버지로 일러졌다. 이것 역시 웅변적이고 知的인 그의 설교에 힘입은 바 크다. 이렇듯 설교는 청교도 사회에서 일종의 대중문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에 목사들의 설교는 풍성했으나 체계적인 神學저서는 별로 없었고 그것은 18세기의 Jonathan Edwards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들은 보다 구체적인 교회론과 역사적 서술, 종교적 명상(meditations) 등을 발표했고 청교도 사이의 신학논쟁 내지 공개토론도 활발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John Cotton (1584~1652)과 앞에 언급한 Roger Williams와의 논쟁이며 그들의 논쟁은 런던에서 출판되었다. Williams는 神權政治에 반대하여 政教分離를 주장하여 *The Bloody Tenent of Persecution* (1644)를 내자 이에 대해 Cotton의 反論(1647)이 나오자 이에 응수하여 다시 *The Bloody Tenent yet More Bloody* (1652)에서 상

20) Murdock, *Literature & Theology in Colonial New England*, p. 43.

대방을 논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재강조하였다.

17세기 말까지엔 New England 식민지의 성격은 완전히 변모하기 시작하였고, 일찌기 Winthrop이 성서를 인용하여 이른바 청교도의 “Citty upon a Hill”로 만들었던 Boston이 이제 그 자체의 경제·정치 체제와 독특한 정치이론과 세속적인 문학전통의 분야가 싹틈으로써 새 국가의 핵심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청교주의의 쇠퇴는 점차적이었지만 1717년의 John Wise (1652~1725)의 「뉴잉글랜드교회 정치옹호」(*Vindication of the Government of New England Churches*, 1717)의 발표는 종교적인 지배의 종식이 시작되고 이를 대치할 민주주의 이론이 대두했음을 고하는 것이었다. 영국 철학자 John Locke을 통해 식민지에 들어온 정치사상은 인간은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천부의 권리가 있는 것이며 정부를 구성하고 위정자를 뽑는 것은 그의 권리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권리를 보호하는 권력을 정부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기원은 神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며 神權說은 Locke의 契約說에 의해 대치되었다. 후년에 미국의 독립전쟁을 일으킨 애국자들은 인간이 형성한 정부는 인간이 해체시킬 수도 있다면서 혁명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계약설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인데 그들보다 앞서 18세기 초에 그 개념을 교회정치에 적용시킨 것이 John Wise였다. 그는 「교회 논쟁 지지」(*The Churches' Quarrel Espoused*, 1710)와 상기한 *Vindication*에서 Mather父子가 청교도 교회를 소수독재(oligarchic system)에 위임하지 않도록 주장했으며, 특히 후자에서 교회와 국가 양자의 합리적인 통치체제가 민주주의임을 역설했다. “The end of all good Government is to Cultivate Humanity, and Promote the happiness of all, and the good of every Man in all his Rights, his Life, Liberty, Estate, Honour &c. without injury or abuse done to any.”라고 주장한 그의 말은 1776년의 「미국독립선언문」(the Declaration of American Independence)에 표현된 정치사상을 앞지른 것이다.

이상, 식민지 초기에서 1730년경까지의 미국문학 배경과 더불어 주요한 散文作家와 作品을 살펴보았지만 同期間의 詩분야에서는 어떤 anthology를 보나 마찬가지로 세 시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dward Taylor가 단연 상위이고 여류시인 Anne Bradstreet가 다음이고 Michael Wigglesworth는 한층 떨어지는 시인으로 평가된다.

散文을 보아 짐작할 수 있듯이 New England의 풍토에서 詩 역시 청교도 냄새를 물씬 풍겼다. 詩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英本國의 Philip Sidney, Edmund Spenser, Francis Quarles, George Herbert 등의 종교시를 읽었으며 속세를 노래한 시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形而上派였으며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시하고 美보다 教化가 목적이었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聖歌集 *The Bay Psalm Book* (1640)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Richard Mather, Thomas Welde, John Eliot 등의 청교도가 헤브라이語 聖詩(psalms)를 찬송가(hymns)體로 英譯한 것으로서 식민지에서 인쇄발행되어 나온 최초의 단

행본이다. 拙詩의 표본들이지만 책이 희소한 17세기 식민지에서 집집마다 갖고 있던 이 책은 어려서부터 찬송 부를 때마다 되풀이 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Shakespeare의 이름은 몰라도 이 책에 든 찬송가들은 눈을 감고도 외웠다. Psalm 23의 예를 든다.

The Lord to me a shepherd is,
want therefore shall not I.
He in the folds of tender grass
doth cause me down to lie.
To waters calm me gently leads,
Restore my soul doth he:
He doth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lead me.
Yea, though in valley of death's shade
I walk, none ill I'll fear:
because Thou art with me. Thy rod
and staff my comfort are.
For me a table Thou hast spread
in presence of my foes....

New England 식민지에서 自生하고 육성된 이 찬송가들은 이 땅에 종교적이나마 作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숨은 역할을 했음이 틀림없다. 詩가 장려되는 풍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몰래 詩를 즐기고 또 詩를 쓴 사람들 가운데 여류시인 Anne Bradstreet (1612~72)가 있다. Massachusetts Bay 식민지의 제 2대 총독의 딸이고, 그녀의 死後에 자기 남편도 총독이 된, 高官의 婦人이었고 여덟 자녀를 키운 “frontier woman”이었으나 틈틈이 영국의 形而上詩人을 모방하여 쓴 詩가 상당한 부피에 이르자, 그녀의 친척이 그녀를 찬양하는 뜻을 지닌 제목을 부쳐 London에서 출판한 詩集이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난 열번째 詩人」(*The Tenth Muse Lately Sprung Up in America*, 1650)이다. 形而上詩人을 모방했기 때문에 딱딱한 것이 많으나 당시의 여성으로서의 놀랄만한 박식을 과시한 것인데 그녀가 이를 改訂增補하여 다시 꾸며 놓은 것이 그녀의 死後에 *Several Poems Compiled with Great Variety of Wit and Learning* (1678)으로 출판되었다. 그 중에서 “Contemplation”(명상)은 아름다운 New England를 노래하여 미국 최초의 불만한 自然詩가 되었다. 자연을 찬양하면서도 “How excellent is He that dwells on high,/Whose power and beauty by his works we know!...”라고 하면서 조물주를 찬양하는 그녀는 자연에서는 겨울이 와서 나무의 푸르름이 사라져도 봄이 되면 다시 소생하여 더 젊어지는 데 인간은 나이를 먹으면 노쇠해지고 사멸한다고 개탄하고는 곧 反轉하여 “But man was made for endless immortality.”²¹⁾ 라는 기독교적인 영혼불멸의 믿음으로 돌아간다. “painted”된 것 같으면서도 “true”한 색채를 가

21) Pearce, *Colonial American Writing*, p. 225.

진 New England의 가을의 현란함을 “contemplate”할 때, 그녀는 그것에 자신의 감각이 “rapt”되어 처음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라 했지만 결국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는 오죽 탁월하시겠느냐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I wist not what to wish, yet sure, thought I,
If so much excellence abide below
How excellent is He that dwells on high,
Whose poem and beauty by his works we know.²²⁾

후년의 William Cullen Bryant의 名詩 “Thanatopsis”(死觀)를 豫示하는 듯한 이 작품을 포함해서 그녀의 거의 모든 詩에는 성서에서 끌어낸 이미지리의 진부한 표현이 많고 그 귀결은 항상 神에게 영광을 돌리는 청교도 장신을 보여준다. 자기 집에 화재가 난 것을 슬퍼하면서도 자기의 財寶는 하늘에 있다는 회망적인 결론을 짓는 “Upon the Burning of Our House”가 그렇고, 또 남편에 대한 애정을 노래하면서도,

“Then while we live, in love let’s persevere
That when we live no more, we may live ever.”²³⁾

라고 하여 소박하고 힘차게 그것을 내세에 대한 신앙과 일치시키고 있는 “To My Dear and Loving Husband”도 그러하다.

Anne Bradstreet의 詩가 현세적인 것에 대한 사랑과 내세에 대한 신앙의 긴장관계 위에 성립된다고 한다면, Michael Wigglesworth (1631~1705)의 詩는 내세에 대한 신앙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는 하버드 출신으로 교사경력도 있으며 Massachusetts의 시골목사로서 의사도 겸했었다. “Unlike Mrs. Bradstreet, Wigglesworth was not interested in poetry as poetry or in contemplating nature. He rhymed his dogmas because they were easier to remember that way.”²⁴⁾라는 評도 있듯이 그의 長詩 *The Day of Doom* (1662)에서도 그는 일반 민중이 이해하기 쉽게 ballad 詩形으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성서의 기술을 韻文化하고 영원한 형벌에 관한 Calvinism의 敎義를 추가하여 진정한 성도(saints)의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했다. 이것은 1660년 英本國의 王政復古의 여파로 청교도 식민지가 불안에 싸여 있는 위기에 몰려 누워 교단에 서지 못한 그가 펜으로 설교를 대신하려고 쓴 서사시이다. 지옥의 겁주는 무서운 장면을 묘사한, 현세 부정적인 이 詩는 현대인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장래엔 널리 읽혀지고 판을 거듭하는 베스트셀러였다. “Meditations Concerning the Necessity, End and Usefulness of Afflictions into God’s Children,” “All tending to Prepare

22) *Ibid.*, p. 221.

23) *Ibid.*, p. 232.

24) Hyatt H. Waggoner, *American Poets: From Puritans to the Present*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8), p. 10.

them for and Comfort them under the Cross” (1664) 등의 詩도 그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모두 신앙을 복돋기 위한 것들로서 역시 인기가 높았고 그의 詩는 1세기 동안 *The Bay Psalm Book*의 찬송가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애송되었고, 아이들에게는 敎理問答과 더불어 그의 詩句를 외우게 했다고 한다.

미국 최초의 중요한 시인으로 치는 Edward Taylor (c. 1642~1724)는 王政復古 후에 청교도 박해를 피하여 22, 23세때 영국을 떠나 Boston에 와서 Increase Mather의 영접을 받았다. 하버드대학에서 만나 기숙사생활도 같이 한 Sewall과의交友은 일생동안 계속되었지만 그는 Massachusetts의 변경 Westfield에서 Wigglesworth처럼 목사 겸 의사로서 58년 간이나 조용한 봉사의 생애를 보냈다.

Taylor의 詩의 주제를 Anne Bradstreet와 대비하여 “The subject matter of Taylor’s verse is almost exclusively devotional, whereas Bradstreet covers a variety of human concerns, including domestic relationship. Her simple diction and clear syntax contrast sharply with Taylor’s elaborate verbal techniques.”²⁵⁾ 라고 한 Aldridge의 말은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다. Taylor는 일상의 경험에 기초를 둔 비근한 metaphor나 이미지리를 사용했는데 그 점에서 후기의 Bradstreet와 공통되지만 그래도 Taylor 쪽이 훨씬 더 정교하고 비약적이었다.

Taylor는 생전에 그의 詩를 발표하지 않았고 또 그의 死後에도 공개하지 말도록 유언까지 했었기 때문에 2백년 이상이나 묻혀있다가 Yale대학의 Thomas H. Johnson 교수에 의해 원고가 정리되어 1939년에 그 일부를 추린 *The Poetical Works of Edward Taylor*가 출판되어 햇빛을 보게 되고 그 진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詩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 데, 한 그룹은 “God’s Determinations”라는 제목하의 36편의 連作으로, 서정시와 도덕극(morality play) 비슷한 것이 섞여 있다. 인간의 영혼이 神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Satan의 조종을 물리치고, 성도(saints)의 인도로 천국에 가는 과정을 노래한 이 連作의 主題는 Wigglesworth의 詩와 마찬가지로 청교도의 敎義를 韻文化한 것이지만 묘사가 더 생기있고 작품으로서도 뛰어나다. 특히 마지막 7편은 神의 구원에 환희하여 그 영광을 찬양하는 감동적인 서정시로 되어 있다. 또 하나의 그룹은 “Sacramental Meditations”로 불리우는 217편의 連作으로서 그것은 다년간 그가 聖餐式을 거행하기 전날 그 준비로서 행한 명상을 詩로 쓴 것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설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내용도 개인적인 감동을 기초로 하고 있다. 詩形은 모두 弱强 6步格(iambic hexameter)의 6행의 節(stanza)로 통일하고 그 틀 안에서 신앙의 환희를 분출시키고 있다. 이 두 그룹 외에 10편 가량의 독립된 서정시가 있다. Taylor는 청교도가 한결같이 우울하고 근엄하다는 정설을 깨고 신앙생활의 환희를 읊은 것이 특징이다. Taylor가 그리는 성도는 John

25) A. Owen Aldridge, *Early American Literature: A Comparative Approach*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2), p. 53.

Bunyan의 무거운 걸음의 순례자와는 대조적으로 마차를 타고 노래하며 하늘 나라를 향해 달린다. 그의 詩는 흔히 감각적인 이미지와, 일반적으로 詩語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비속한 용어와 일상적인 사물이 metaphor로서 상당히 자유롭게 구사되는데 예컨대 「家政」 “Huswifery” (Housewifery)라는 독립된 시에선 당시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었던 물레질과 베짜기의 metaphor를 사용하여, 자기가 주의 물레가 되어 숨에서 실을 빼고 주의 베틀이 되어 그것으로 짠 옷감으로 만든 성스러운 옷을 입는 보람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Make me, O Lord, thy Spinning Wheele compleat;
 Thy Holy Worde my Distaff make for mee.
 Make mine Affections thy Swift Flyers neate,
 And make my Soule thy holy Spoole to bee.
 My Conversation make to be thy Reelee,
 And reele the yarn thereon spun of thy Wheele....²⁶⁾

또 “The Experience”라는 “Meditation 3”에 해당하는 詩에서 Taylor는 여러가지 악기가 되어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낸다.

Oh! that my Heart, thy Golden Harp might bee
 Well tun'd by Glorious Grace, that e'ry string
 Screw'd to the highest pitch, might unto thee
 All Praises wrapt in sweetest Musick bring.
 I praise thee, Lord, and better praise thee would,
 If what I had, my heart might ever hold.²⁷⁾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식민지 초기의 詩들은 그 작품의 우열을 가릴것 없이 한결같이 종교적임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동시대의 散文보다도 그런 면에서 더 통일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Tylor 교수가 그의 초기 미국문학사에서 “And in our record of the literary achievements of New England in the colonial time, the clergy fill by far the largest space, because, in all departments of writing, they did by far the largest amount of work.”²⁸⁾라고 한 말은 散文뿐만 아니라 詩부문에서도 그대로 들어맞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렇듯 청교도의 문필가들이 그들의 저작에서 종교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세속적인 또는 순수한 문학을 싫어했다거나 문예창작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Cotton Mather가 젊은 지식인에게 문학에 유혹되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에피소드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 자신도 순문학에 마음이 끌리고, 또 그들이 남긴 저작으로 類推해 볼 때, 문

26) Thomas H. Johnson, ed., *The Poetical Works of Edward Tayl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66), p. 116.

27) *Ibid.*, p. 124.

28) Tylor, *A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p. 81.

예창작의 잠재력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청교도적인 召命意識과 그 특이한 사회풍토는 그들로 하여금 문예창작보다는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에 눈을 돌리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상기한 소수의 詩人처럼 간혹 문예창작에 상당한 경지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창작을 餘技로 했고 그나마도 그 장르는 宗教詩 일색이었다.

그리고 보니 계몽주의(the Enlightenment)와 자유주의(Liberalism)가 서서히 청교주위를 대치하기 시작하기 이전의 New England의 미국문학에서 청교주의가 얼마나 지배적이고 뿌리깊었는가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므로 Pearse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온 모든 것의 핵심사상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Their obligation was to search for evidence of His way with them, to live according to the mandates of that way, and ever to study themselves in their world, ever to know their nature as it might manifest their fate. Theology, philosophy, political theory, history, and even the arts—all were to be valued only to the degree that they might be means of searching out that nature and discovering that fate. In its early, great period, Puritan society was held together by a tension of desperate certitude.²⁹⁾

Bibliography

- Aldridge, A. Owen. *Early American Literature: A Comparative Approach*. Princeton Univ. Press, 1982.
- Arbor, E. & Bradley, A. (Eds.), *Travels and Works of Captain John Smith*, 2 vols. Edinburgh, 1910.
- Bradford, William. *Of Plymouth Plantation, 1629~1647*. Samuel Eliot Morison. (Ed.), New York, 1952.
- Grabo, Norman. "William Bradford: *Of Plymouth Plantation*," In Henning Cohen, (Ed.), *Landmarks of American Writers*. Voice of America Forum Lectures, USIS, 1970. 58, 61-63.
- Johnson, T.H. (Ed.), *The Poetical Works of Edward Taylor*.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 Mead, Robert D. *Colonial American Literature From Wilderness to Independence*.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6.
- Miller, Perry. (Ed.), *The American Puritans: Their Prose and Poetry*. New York: Doubleday & Co., 1956.

29) Pearce, *The Continuity of American Poetry*, pp. 18-19.

- Murdock, Kenneth B. *Literature & Theology in Colonial New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 Parrington, Vernon L. *The Colonial Mind: 1620~1800*.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27.
- Pearce, Roy H. (Ed.), *Colonial American Writing*. New York: Rinehart & Co., 1958.
- Pearce, Roy H. *The Continuity of American Poet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Spiller, Robert, et al. *Liter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46.
- Taylor, Walter F. *A History of American Letters*. New York: American Book Co., 1936.
- Taylor, Moses Coit. *A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 1607~1783*. Jones, Archie H.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 Waggoner, Hyatt H. *American Poets: From Puritans to the Present*. New York: Dell Publishing Co., 1968.

ABSTRACT**The Overwhelming Impact of Puritanism
on Colonial New England Literature****Wang-Rok Chang**

Since the colonization of the New World was a product of both Renaissance and Reformation, the two contrasting ideals, Puritanism and liberalism, largely constituted the common life style in New England in its early period. As far as literature is concerned, however, Puritanism was dominant to such a degree that liberalism had only a puny voice. The early colonists lived under theocracy, a Puritan government that imposed Puritanism on the people while discouraging liberal thinking. Thus we find very little trace of the liberal spirit in early New England writing but rather a domination of Puritanism.

Even such an explorer as Captain John Smith did not exclude from his adventurous account his sense of Providence and the need of converting the "savage indian" to Christianity. This exemplifies the "union of spirituals and temporals" which is a "Renaissance obsession." William Bradley was a paramount example of a Puritan writer who described in his *History of Plymouth Plantation* how the earliest colonists overcame thousands of difficulties and dangers confronting them, ascribing their success to the grace of God. He was convinced that they were "God's favored people" erecting a New Jerusalem in the New World. John Winthrop's *Journal* follows the same general line.

Histories, diaries, journals, netebbooks, biographies, autobiographies, and sermons provided by Increase Mather, Cotton Mather, Samuel Seawall, and other notable prose writers, as well as poetry written by Edward Taylor, Anne Bradstreet, and Michael Wigglesworth, who represent Puritan poetry at its best, were all impregnated with the same thought patterns, though not without a handful of exceptions. Flashes of liberalism, for example, can be found in Sewall's *Diary*.

As these sporadic flashes of liberalism or secularism were on the speedy rise and were combined with a newly introduced Deism, traces of Puritanism remained and deeply entrenched while theocratic practice ceased entirely. This trend was so pervasive that Jonathan Edwards's efforts to restore the original meaning of Puritanism was unsuccessful.